

The Influence of Bully's Psychopathic Tendency on the Level of Empathy in Middle & High School: Focusing on the Change after Exclusive Experience

Yunjung Eo¹ Young-Ho Lee^{2†}

¹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Seoul; ²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sychopathy on empathy levels among the adolescent-bully group. In particular, we highlighted whether the exclusion experience changed the empathy levels of participants.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conducted by 1,794 adolescents. The data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bully-psychopathy group, bully-non psychopathy group and normal group. During this experiment,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Cyberball Game. The exclusion experience was manipulated by the game, and the empathy levels regarding the exclusive scenario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of Cyberball Game. As a result, before subjects were excluded from the Cyberball Game, both the bully-psychopathy and bully-non psychopathy groups did not demonstrat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mpathy level of victims. After the exclusion experience, both group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change of empathy level. Although the bully-psychopathy group did not show any drastic change of the empathy level before and after the exclusion experience, the bully-non psychopathy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mpathy level. Herei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a future research direction is proposed.

Keywords: psychopathy, empathy, bully, victim

청소년기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어 나가는 시기로 이때 경험하는 또래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확대를 통해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자신 그리고 주변세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지지와 수용을 경험함으로써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고, 가족이나 학교, 학업 등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도 한다(Parker & Asher, 1987). 이렇게 청소년 시기의 또래는 서로에 대한 동조성(Brown, Clasen, & Eicher, 1986)과 애착(Jang, 1997)이 증가하며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부모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갖게 된다(Kim, 2001).

이렇게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에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고통이나 상처가 성인에 비해 매우 클 수 있다(Cho & Cho, 2007). 2012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또래괴롭힘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민을 가거나 학교를 포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Kang, Lee, & Yim, 2002). 이러한 심각성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또래괴롭힘의 원인이나 유형을 비롯하여 많은 대책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해행동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로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가해행동을 중단한 학생의 80.6%가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가해자의 인성과 공감을 중요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는 일관적이지

†Correspondence to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Wonmi-gu, Bucheon, Korea; E-mail: yhlee@catholic.ac.kr

Received Aug 26, 2016; Revised Oct 3, 2016; Accepted Dec 5, 2016

This paper included part of master's thesis (Eo, 201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않다(Kwak, 2008).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로 인해 ‘가해자 집단이 동일한 특성을 갖는 집단인가’에 대해 연구자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일부 연구결과 가해자 집단이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발달경로를 보인다는 것이 보고되었다(Cicchetti & Rogosch, 1996; Moffitt, 1993). 즉 가해자 집단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집단이 가지는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정신병질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가해자 집단의 이질성을 정신병질 성향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Fanti, Frick, & Georgiou, 2009; Frick, 1998; Frick, O'Brien, Wootton, & McBurnett, 1994).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의 가해자 집단을 정신병질 성향에 따라 구분하고, 각 하위 집단이 서로 다른 공감 특성을 갖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래괴롭힘 가해자와 공감

또래괴롭힘은 왕따, 이지메, 집단따돌림, 사회적 배척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 정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hon, Lee, Yoo, & Lee, 2004). 일반적으로 또래괴롭힘의 개념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 행위에 노출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Olweus, 1978). 여기서 ‘부정적 행동’이란,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거나 시도하는 것, 신체적/심리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인상 쓰기, 불쾌한 제스처, 루머 퍼뜨리기, 집단에서 소외시키기 등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Kim & Lee, 2000).

특히, 집단에서 소외시키기와 같은 사회적 배제/배척은 타인에 의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여 혼자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가진 기본 욕구의 하나인 소속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면 보통 개인의 정신 혹은 신체에 해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판단 및 의사결정 수행능력과 관련한 인지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Son, & Lim, 2014). 불안(Baumeister, & Tice, 1990)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 공격적인 행동(Catanese, & Tice, 2005; Gaertner, & Iuzzini, 2005; Twenge, 2005;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을 보인다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이나 건강 저해 행동(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Baumeister, Twenge와 Nuss (200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복잡한 논리 문제나 수학 문제 풀이에 있어서 떨어지는 수행 능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또래의 소속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또래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는가

아닌가 이상으로 그들이 ‘계속 살아야 할까 혹은 죽는 것이 나을까’를 결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아동이나 성인과 다른 면이 될 수 있다(Lee, 200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또래괴롭힘 피해자의 자살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나서야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인 경찰관의 학교 전담제 운영이나 폭력 학생의 전학 조치 등 또래괴롭힘에 대한 많은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Lee, 2015).

또래괴롭힘은 관계의 폭력으로 그 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며, 그 중심에는 가해자가 있다(Kim, 2013). 또래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역시나 많은 정의를 내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가해를 주도하고 괴롭힘 행동을 이끌어가는 학생’ 또는 ‘피해학생 및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된다(Lee, Yoon, Kim, & Hur, 2012). 가해자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가해 청소년들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모색하려는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Olweus, 1978), 국내외 연구결과 역시 가해자는 피해자 및 정상 집단과 다르게 다소 자기중심적이며, 지배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수단시하며, 공격적이고 냉담하며 충동적으로 자극을 추구하는 등의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hon, Lee, Yoo, & Lee, 2004; Kang et al., 2002; Kim, 2005; Kim & Lee, 2000; Lee et al., 2012; Sutton & Smith, 1999). 이외에도 과도한 인정요망, 높은 타인 기대와 완벽성, 피해의식 등을 특징으로 한다(Kim & Lee, 2000). 과거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감(empathy)이란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기원은 Aristotle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미학분야에서 사용되던 ‘Einfühlung’을 착시와 대인관계의 이해 영역에 적용하면서 처음으로 공감이 심리학에 연구되기 시작하였다(Sharma, 1993).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정의에 있어서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며, 공감이 인지적 요소인지 정서적 요소인지를 두고도 오랜 기간 논쟁을 해왔다. 많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학자들은 공감이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고 공감이 단일요인이 아닌 다요인 구성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Davis, 1980; Hoffman, 1984).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상태를 조망하는 것, 즉 공감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망수용, 마음이론(theory of mind)의 요소를 포함하며,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느낌에 자신을 들 수 있는 것으로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이에 해당된다(Cohen & Strayer, 1996; Davis, 1980).

공감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즉 대리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와 같은 가해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공감을 통해 피해자의 정서를 느끼게 되면 이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고통을 야기하며, 따라서 공격성을 억제하고 사회적 배제와 같은 가해행동을 막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Feshbach & Feshbach, 1982; Hoffman, 1984). 실제 Carrie 등(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상황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상황을 보여주면서 뇌활성화 수준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포용 상황보다 배제 상황에서 심리화(mentalizing) 관련 뇌영역(예: dorsomedial prefrontal cortex)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공감능력이 높은 피검자에게 두드러졌으며, 이후 친사회적 행동(예: 배제 상황의 피해자에게 이메일 보내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뇌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배제 상황은 이를 지켜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공감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정서적 공감이 공격성을 억제하는 고통단서로 작용한다는 Blair (1995)의 '폭력억제기제(Violence Inhibition Mechanism)' 이론과도 일치하는 견해이다. 폭력억제기제 이론에 따르면 타인의 정서가 공감을 통해 고통단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행동을 철수하거나 억제하는 반응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고통단서에 따른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며 다시금 해당 반응은 강화된다(Feshbach & Feshbach, 1982). 따라서 공감능력은 공격성이나 사회적 배제 행동을 억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해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가해자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감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시사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 달리 가해자의 공감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일치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해자 집단의 공감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가정과는 달리 다수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가해자의 공감능력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선 가해자 집단의 공감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상되어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Kim과 Lee (2000)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가해청소년은 다른 피해청소년이나 정상청소년보다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공감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Shin (2012)의 연구결과 역시 공감능력과 가해성향 사이에 부적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다수 연구에서는 가해성향과 공감능력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Kang (2007)이 초등학교 및 중학생 1,307명을 대상으로 왕따 참여자 역할 별 공감능력을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 마찬가지였다. 또한 Caravita, Blasio와 Salmivalli

(2009)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은 가해행동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인지적 공감은 가해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일관되지 않은 양상이 보고되었다. Miller와 Eisenberg (1988)의 메타연구에 따르면, 11개의 연구에서는 공감척도와 공격적 행동 사이에 부적상관이 나타났지만, 12개의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3개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공감과 반사회적 행동 사이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Lovett와 Sheffield (2007)는 가해아동 및 가해청소년의 공감 수준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최근 17개의 연구를 정리하였고, 그 결과 17개의 연구 모두 동일한 공감척도를 사용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공감과 가해성향 사이에 관련성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개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보통 공감 훈련, 또래도우미, 역할접근 프로그램 등으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다(Kwak, 2008). 개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적 프로그램이 폭력이나 따돌림을 증대하기보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었다(Pepler, 1997). Merrell과 Isava (2008)가 최근 25년 동안의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1/3정도의 산출변인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대부분 변인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효과가 있더라도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다른 측면(예: 관련 지식, 태도, 자기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해자 대상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가해자 집단의 공감수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가해자를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고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보는 견해가 강했지만 최근 연구자의 시각은 많이 달라졌다. 가해자 중 일부는 상당한 사회적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마음을 읽는 공감능력이 오히려 더 높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Dautenhahn & Woods, 2003). 이러한 높은 능력을 가진 가해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능과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을 통제하는 소위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Sutton, Smith, & Swettenham, 1999). '가해자 집단의 공감능력이 손상되어 있다'와 같은 단순한 주장은 지지받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가해자 집단이 가진 이질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해자 집단에서 보이는 자기중심적이며, 지배적이고, 냉담하며, 충동적으로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과 유사한 개념인 정신병질 성향에 주목하였다(Ragatz, Anderson,

Fremouw, & Schwartz, 2011).

가해자와 정신병질

정신병질의 개념은 Cleckly에 의해 1976년에 학계에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Hare와 같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다(Kwak & Kim, 2008). 정신병질자들은 외관상으로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 역시 평균 이상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도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Lee & Huh, 2004). 특히 정서적 역기능은 정신병질자의 중요한 특징이다(Blair, Peschardt, Budhani, Mitchell, & Pine, 2006). 정신병질자의 정서적 역기능은 냉담성(callousness)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이 냉담성은 사회적 기준이나 부모에게 대항하는 행동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권리 침해, 공감 부재를 야기한다(Bruke, 2007). 정신병질자들이 고통이나 공포, 슬픔 등의 특정 정서에 손상을 갖고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Blair, 2003; Bla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Kosson, Suchy, Mayer, & Libby, 2002; Lee & Kim, 2009; Stevens, Charman, & Blair, 2001), 이러한 정서적 공감의 손상으로, 타인에 대한 공격 시 상대의 공포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공격행동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Kwak & Kim, 2008; Mineka & Cook, 1993).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신병질이 가해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Frick (1998)은 충동성이나 자극 추구 성향, 불안 등이 청소년기의 정신병질 성향에 관련된 요인임을 밝혀내었으며, Saltaris (2002)는 아동기 때의 환경에서 양육자와 공감이 부족하고 정서가 결여되는 것이, 청소년 정신병질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Lynam (1997)은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규칙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였다. Fanti 등(2009)이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 청소년 중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하위 집단은, 정신병질 성향이 낮은 하위 집단보다, 선행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이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병질 성향은 공격성과 분노감, 적대감과도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Lee, 2015). 최근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에서 공감능력의 손상을 통해 가해정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정신병질 성향의 증분타당도가 확인되고 있다(Muñoz, Qualter, & Padgett, 2011; Viding, Simmonds, Petrides, & Frederickson, 2009). 국내에서는 Kang과 Yim (2010)이 범죄청소년을 정신병질 성향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집단은

확연히 구분되었고 그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가해자 집단은 정신병질 성향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병질 성향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괴롭힘 가해자를 정신병질 경향에 따라 구분하고, 두 하위 집단(가해-정신병질 집단,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이 피해자를 공감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게임을 통해 배제경험을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감 수준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공감 수준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Nordgren, Banas와 Macdonald (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 게임을 통해 배제경험을 조작하였고, 그 이후 따돌림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 수준이 변화하는지, 공감 수준의 변화가 실제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배제경험 이후 교사들은 따돌림 피해학생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보였다. 또한 피해학생이 느끼는 고통을 더 심하게 지각할수록 피해학생에게 더 폭넓은 치료를, 가해학생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게임 속에서 본인 스스로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어보는 배제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이 증가하고, 이는 해당 피해자나 가해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개인에게는 배제경험이 이러한 공감적 과정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 정신병질 성향이 낮은 가해자에게는 배제경험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보일 수 있겠으나,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가해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감 수준 변화양상의 차이는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제경험 이후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은 가해행동을 선택하지 않으려 할 수 있으나, 가해-정신병질 집단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제경험을 한 후,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이 증가하는 반면, 가해-정신병질 집단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 배제경험 이후, 가해-비정신병질 집단과 가해-정신병질 집단 간 가해상황 선택 비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방법

연구대상

실험 참가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경기, 전북의 총 10개교에

재학 중인 중·고생 1,731명과 서울 소재 청소년 보호관찰소에서 수용 중인 수용생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집단 구분을 위해 또래괴롭힘 가해척도(이하 가해척도)와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가,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가 함께 실시되었다.

가해척도 점수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가해자 집단 내에서도 YPI 점수가 상위 10% 속하는 응답자는 가해-정신병질 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응답자는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해자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가해 점수 및 YPI 점수가 평균 50%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정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응답을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전체 응답자 1,787명 중 54명(3.02%)이 가해-정신병질 집단, 140명(7.83%)이 가해-비정신병질 집단, 623명(34.86%)이 정상 집단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가해-정신병질 집단 44명, 가해-비정신병질 집단 49명, 정상 집단 5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실험 중에 중도 탈락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13명(가해-정신병질 34명, 가해-비정신병질 39명, 정상 집단 40명)의 자료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집단에 따른 각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설문 측정 도구

또래괴롭힘 가해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Choi와 Chae (1999)가 개발한 또래괴롭힘 가해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괴롭힘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 각 유형별(소외형, 언어형, 신체형)로 각각 5문항씩으로 가해 항목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1점-없었다, 2점-일주일에 여러번)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를 경험한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Choi와 Chae (1999)의 연구에서 또래괴롭

힘 가해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YPI)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집단을 정신병질 특성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Andershed, Kerr, Stattin과 Levander (2002)가 개발한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YPI)를 Kim, Park와 Kim (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질 특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Kim 등(2005)의 연구에서 검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10개 하위요인에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 반응척도(IRI)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 (1980)가 개발한 성인용 대인관계 반응척도를 청소년에 맞게 Kim (1997)이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 간 공감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자기보고식 공감능력 점수와 실험 지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예: 자기보고식 공감능력과 실험 지표 상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 간, 자기보고식 공감능력과 배제 경험 전후 공감수준의 변화양상 간의 관련성).

IRI 척도는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총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공감은 다시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과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각 7문항으로, 인지적 공감은 상상하기(fantasy)와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각 7문항의 하위척도로 나뉜다. 5점 Likert 척도로(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 두 요인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Table 1. Mean Differences of YPI, Bully Scale and IRI between Three Groups

	Bully group		Normal (n = 40)	F (2, 110)	Post hoc (Scheffe)
	Psychopathy (n = 34)	Non-psychopathy (n = 39)			
Bully scale	51.97 (9.92)	43.27 (6.86)	19.43 (2.63)	210.06***	a > b > c
YPI	135.85 (15.33)	105.62 (11.16)	85.03 (8.09)	174.21***	a > b > c
IRI	85.13 (9.67)	89.49 (12.82)	108.48 (10.05)	48.21***	a = b > c
IRI-cognitive empathy	42.78 (5.70)	45.64 (8.41)	56.20 (6.04)	39.91***	a = b > c
IRI-emotional empathy	42.39 (5.06)	43.85 (6.09)	52.28 (5.66)	33.90***	a = b > c

Note. YPI =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IRI =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a = bully-psychopathy group; b = bully-nonpsychopathy group; c = normal group. ***p < .001.

실험 절차

실험프로그램은 Peirce (2007)가 개발한 사이코피(Psychopy 1.78)를 사용하여 제작 및 진행되었으며, 실험은 노트북 8대를 통해서 8명씩 동시에 진행되었다. 모든 실험 절차는 컴퓨터 상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전반적 실험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배제경험 전

배제 경험을 조작 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를 통해 실험참가자의 정서 상태를 측정하였다. 이후 시나리오 6가지를 제시하고, 본인이 해당 시나리오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그 수준을 얼굴고통척도(FPS-R)를 통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준비된 전체 시나리오 12개(배제 시나리오 6, 분노 시나리오 4, 공포 시나리오 2)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가지(배제 시나리오 3, 분노 시나리오 2, 공포 시나리오 1)를 배제경험 전에 제시하였으며, 나머지는 배제경험 이후 제시하였다. 배제경험 전-후에 제시되는 시나리오의 종류 및 순서는 무작위로 설정하였다.

배제경험 조작

사전 설문을 완료한 후, 다음으로 배제경험을 조작하기 위해 사이버볼 게임을 실시하였다.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 중앙하단, 좌측상단, 우측상단에 공을 주고받을 캐릭터 세 명이 각각 나타나며, 각 캐릭터 옆에는 이름, 학교코드, 학년이 표시되었다. 세 개의 캐릭터 중 중앙하단 캐릭터가 실험참가자에 해당하며 캐릭터 좌측에 참가자의 이름과 학교코드, 학년이 표시되었다. 나머지 두 캐릭터는 사전에 설정된 목록 내에서 무작위로 이름, 학교코드, 학년이 표시되었다. 실험진행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 접속한 것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실제 다른 학교 학생이 접속한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게임은 전체적으로 2라운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라운드의 경우 총 38-40회 공던지기 시행 중 실험참가자는 4회(약 10%)만 공을

받을 수 있도록, 2라운드의 경우 총 23-25회의 공던지기 시행 중 2회(10% 미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이를 통하여 공돌리기 게임 중 실험참가자는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배제 당하는 경험을 하도록 조작된다.

배제경험 후

사이버볼 게임을 마친 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를 통해 참가자 본인의 정서 상태를 한 번 더 평정하였으며, 이후 총 12개 시나리오 중 사이버볼 게임 전에 제시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시나리오(배제 시나리오 3, 분노 시나리오 2, 공포 시나리오 1)를 제시하여, 참가자가 해당 시나리오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그 수준을 얼굴고통척도(FPS-R)를 통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가해상황 선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3라운드에서는 앞선 게임과 달리 같은 학교 친구가 한 명 더 포함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본인은 공을 자주 받겠지만 다른 학교의 한 명이 따돌려 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3라운드를 진행하고 싶은지 그 여부를 질문하였다.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실험은 종료되도록 설정하였다. 실험 종료 후, 5-10분 정도에 걸쳐 실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본인이 경험한 배제경험이 실제가 아니라 조작된 상황임을 알려주고 양해를 구한 뒤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 재료

부정적 사건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건을 제시하고 피검자가 이야기 속 주인공의 고통을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통해 공감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에 앞서 Nordgren, Banas와 Macdonald (2011)의 부정적 사건 시나리오를 연구자가 한국 정서에 맞는 사건으로 변안하여 총 28개의 부정적 사건 시나리오(화/공포/실망을 유발하는 시나리오 20개, 사회적 배제 상황에 처하는 시나리오 8개)를 제작하였다. 이후 중·고등학생 154명과 심리학과 대학원생 41명에게 예비 설문을 실시하여, 유사한 수준의 고통 수준을 보인 12개의 시나리오(사회적 배제 시나리오 6, 분노 시나리오 4, 공포 시나리오 2)를 최종 선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제시된 지문과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지시: “당신 스스로를 시나리오 주인공으로 상상하면서 각 상황에서 느껴지는 기분이나 감정의 강도를 가장 잘 표현한 얼굴표정에 체크해 주세요.” 시나리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같은 반 친구의 생일이다. 그런데 친구의 생일파티에 반 친구들이 모두 초대받았으나 나는 초대 받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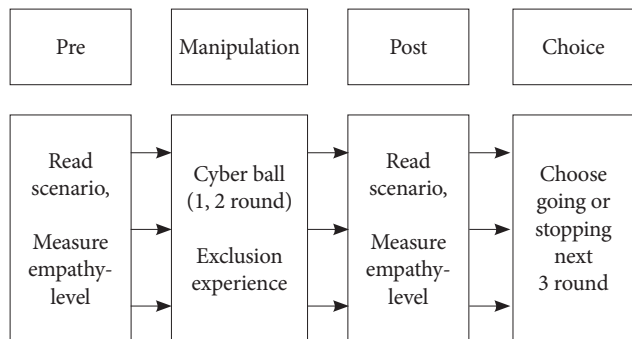


Figure 1. Experimental procedures.

얼굴고통척도

얼굴고통척도(Faces Pain Scale-Revised)는 고통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척도이다(Hicks, von Baeyer, Spafford, van Korlaar, & Goodenough, 2001). 해당 척도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11점(0-10점) 척도로 나누었다. 얼굴은 그들이 표현하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높은 점수는 큰 고통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해당 상황을 실험참가자가 상상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때 느껴지는 고통의 정도를 얼굴고통척도를 통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실험참가자들이 제시된 시나리오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평가했음을 의미하며,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공감 가능성이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한 얼굴고통척도는 Figure 2와 같다.

사이버볼 게임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볼 패러다임을 통해 배제 상황을 조작하였다. 사이버볼 패러다임은 대인관계의 배제와 수용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피험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다른 두 명 혹은 세 명의 사람들과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한다고 믿게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다(Williams, Cheung, & Choi, 2000). 피험자는 다른 두세 명의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같은 실험참가자라고 믿지만 사실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이는 가상의 캐릭터이다. 피험자에게는 이미 지 시각화(mental visualization)를 위한 게임으로 공을 받는 횟수보다는 게임을 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상상해보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게임에서 배제/수용 상황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배제경험 전-후에 걸쳐 실험참가자의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Clark와 Tellegen (1988)이 개발한 것을 Lee, Kim과 Lee (2003)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Likert 5 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검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의 경우 사전/사후 모두 .85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 따른 공감수준 및 가해상황 선택 비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 및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배제경험 전-후에 걸친 공감수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 및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배제경험 조작의 효과

사이버볼 게임 전-후에 걸쳐 정적/부적 정서를 측정하고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배제경험 조작 효과를 점검해 보았다. 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게임 사전-사후에 걸쳐 유의미한 정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적 정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t(55) = 10.02, p < .001$, 반대로 부적 정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t(55) = 5.99, p < .001$. 이는 사이버볼 게임을 통한 배제경험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배제경험에 따른 집단별 공감수준 변화양상

배제경험 전-후에 따른 가해-정신병질, 가해-비정신병질 및 정상 집단의 각 시나리오(배제, 공포, 분노)에 대한 공감수준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집단별 사전/사후 공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배제시나리오의 경우, 집단 \times 시기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F(2, 110) = 5.02, p < .01$. 반면 간섭자극으로 사용된 공포 시나리오, $F(2, 110) = 0.12, ns$, 및 분노 시나리오, $F(2, 110) = 0.88, ns$, 에서는, 집단 \times 시기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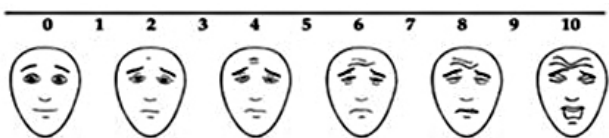


Figure 2. Faces pain scale-revised (FPS-R).

Table 2. Mean Difference of Positive/Negative Affect between Pre and Post

	Pre	Post	t(55)
Positive affect	2.85 (0.74)	1.96 (0.66)	10.02***
Negative affect	1.54 (0.55)	2.02 (0.71)	5.99***

*** $p < .001$.

1) 프로그래밍상 오류로 인해 측정치 중 일부가 소실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분석에 사용된 자료 수(n=57)와 실험참가자 수(N=114)가 일치하지 않음.

Table 3. Mean Difference of Pre/Post Empathy Level between Three Groups

	Bully group				Normal (n = 40)		Fgroup × time
	Psychopathy (n = 34)		Non-psychopathy (n = 39)		Pre	Post	
	Pre	Post	Pre	Post			
Exclusion scenario	4.68 (2.35)	4.82 (2.77)	4.71 (2.10)	5.84 (2.40)	5.96 (1.63)	6.63 (2.03)	5.02**
Fear scenario	5.76 (3.38)	6.44 (3.61)	5.95 (3.49)	7.03 (3.40)	7.65 (2.52)	8.53 (1.71)	0.12
Anger scenario	5.47 (2.57)	5.57 (3.00)	5.97 (2.22)	5.95 (2.53)	5.59 (2.15)	6.28 (2.15)	0.88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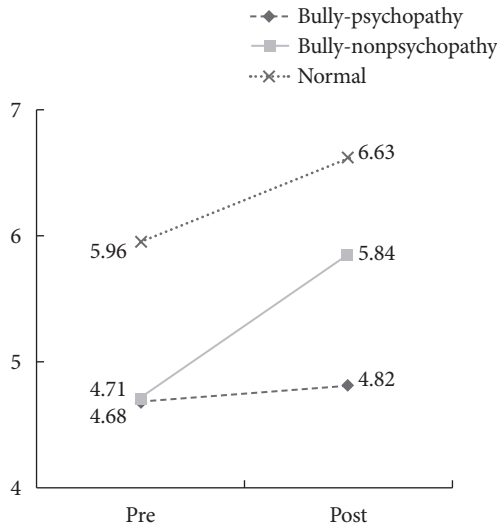


Figure 3. Pre/post empathy level about exclusion scenario between three groups.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이버볼 게임을 통한 배제경험이 여타의 시나리오와 달리 배제 시나리오에 대한 공감수준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배제 시나리오에 대한 집단별 공감수준의 변화 양상을 Figure 3에 제시하였으며,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감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별로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가해-정신병질 집단은 공감수준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t(33) = 0.61, ns$, 가해-비정신병질 집단, $t(38) = 6.16, p < .001$, 및 정상 집단, $t(39) = 3.00, p < .01$, 은 그 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정신병질 집단은 배제경험을 하고 나서도 따돌림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해-비정신병질 집단 및 정상 집단은 배제경험 이후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배제경험에 따른 집단별 가해상황 선택 여부 분석

배제경험 이후 집단별 3라운드 진행 선택 여부, 즉 가해상황 선택

Table 4. Mean Difference of Empathy Level between Pre and Post

	n	Pre	Post	t
Bully group				
Psychopathy	34	4.68 (2.35)	4.82 (2.77)	0.61
Non-psychopathy	39	4.71 (2.10)	5.84 (2.40)	6.16***
Normal group	40	5.96 (1.63)	6.63 (2.03)	3.00**

p < .01. *p < .001.

Table 5. Choice Frequencies of Go or Stop Next 3Round between Three Groups

	Bully group		Normal (n = 32)	χ^2 (2, N = 74)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1, N = 74)
	Psychopathy (n = 23)	Non-psychopathy (n = 19)			
Go	18 (78.3)	10 (52.6)	16 (50.0)	4.93*	4.10**
Stop	5 (21.7)	9 (47.4)	16 (50.0)		

Note. Go = going next 3round; Stop = not going next 3round. Some data (n = 39) was missing because of programming error.

*p < .10. **p < .05.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집단 간 가해상황 선택 비율의 차이는 경계선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 = 74) = 4.93, p < .10$. 집단별 가해상황 선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정신병질 집단은 78.3%,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은 52.6%, 정상 집단은 50.0%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정신병질 점수(YPI)의 평균에 따라 서열(가해-정신병질 집단 > 가해-비정신병질 집단 > 정상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선형 대 선형결합(linear by linear association)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정신병질 성향과 가해상황 선택(Go)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chi^2(1, N = 74) = 4.10, p < .05$.

가해-비정신병질 집단과 정상 집단 사이에 가해상황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 실험참가자를 '정신병질'(가해-정신병질 집단) vs '비정신병질'(가해-비정신병질+정상 집단)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해상황 선택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정신병질 집단(n = 23)과 비정신병질 집단(n = 51) 사이에

Table 6. Choice Frequencies of Go or Stop Next 3Round between Psychopathy and Non-Psychopathy Group

	Psychopathy (n = 23)	Non-psychopathy (n = 51)	χ^2 (1, N = 74)
Go	18 (78.3%)	26 (51.0%)	4.89*
Stop	5 (21.7%)	25 (49.0%)	

Note. Go = going next 3round; Stop = not going next 3round.
Some data (n = 39) was missing because of programming error.
*p < .05.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chi^2(1, N = 74) = 4.89,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가해자를 정신병질 경향에 따라 구분하고, 두 하위 집단(가해-정신병질 집단,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이 피해자를 공감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컴퓨터 게임을 통해 배제경험을 조작한 후, 피해자에 대한 공감 수준의 변화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이는 실제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배제경험을 조작하고 집단별로 공감수준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정신병질 성향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공감 수준의 변화는 차이가 있었다. 배제경험 전-후에 가해-정신병질 집단은 공감수준의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배제경험 이후 집단별 가해상황 선택 여부를 살펴본 결과도 가해상황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해성향보다는 정신병질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의 경우 가해자 집단의 하위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상 집단과 유사한 선택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이 배제경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공감 수준의 변화가 더 나아가 의사 결정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가해자 집단의 공감능력이 손상되었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공감능력의 손상은 가해자 집단 중 정신병질 성향을 보이는 하위집단의 특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시사되며, 가해자-비정신병질 집단이 기질적으로 공감능력이 손상되어 있다는 주장보다는 여타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공감능력이 적절히 발휘되지 못하고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는 가해자 집단의 이질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견해이다(Fanti et al., 2009; Muñoz et al., 2011; Viding et al., 2009).

가해자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가해 척도 문항을 개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에서도, 간접적/관계적 방식(문항 1-8, 15; ‘인사하면 일부러 무시한 적이 있다’, ‘놀 때 일부러 끼워주지 않은 적이 있다’)의 가해행동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직접적/신체적 방식의 가해행동(문항 9-14; ‘다른 아이들 앞에서 욕하며 망신을 준 적이 있다’, ‘매점, 문구점 등에 강제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은 가해자-비정신병질 집단이 더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하위 집단이 사용하는 가해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정신병질 집단의 경우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방식의 가해행동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이 자신의 공감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해행동을 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인가?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이 가해행동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의 경우 타인의 고통을 정서적으로 공감하더라도, 이를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Dienstbier (1984)은 정서적 경험에 해석이 미치는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를 주장하였다. 또한 Dautenhahn과 Woods (2003)는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경우, 공감을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목적-지향적 처리를 함으로써 공감을 통제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고통을 ‘자동적’으로 공감하고 ‘정확히’ 인식하더라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부정확’한 방식으로 처리해버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인지적인 해석 과정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배제경험 전후 공감수준의 변화 정도와 공감능력(IRI)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공감능력은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으나, 인지적 공감능력이 낮을수록 배제경험 이후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제경험을 통해 피해자를 공감하는 과정에 있어, 인지적 측면이 중요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의 경우 가해자가 된 원인이 공감 과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가해-정신병질 아동에 비해 가해-비정신병질 아동은 기본적으로 더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Frick, Barry, & Bodin, 2000).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이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가능하다. 인지적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할 경우 만족을 적절히 지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Loney, Frick, Ellis, & McCoy, 1998),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로 인하여 부정적 행동에 강화를 받거나, 지나치게 엄한 양육태도 역시 교훈을 내재화하는 과정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Kochanska, 1993). 또한 생리적 조절 수준이 낮을 경우에도 정서

나 행동을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Calkins & Dedmon, 2000).

본 연구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또래괴롭힘이나 학교 폭력의 가해자 집단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일한 가해자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정신병질 성향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감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정신병질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가해자 대상 치료적 개입은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가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감 중심의 치료적 개입 효과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Merrell & Isava, 2008).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을 돌아보면 상당수가 가해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해자 집단이 하나의 성향으로 묶기 어려운 집단임을 시사하며, 앞으로 현장에서는 정신병질 성향을 고려하여 가해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개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가해-비정신병질 집단의 경우, 기질적으로 공감능력 자체가 손상되었다기보다 여타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공감 능력이 발휘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감 중심의 치료적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겠으나, 동시에 이들의 공감 능력을 제한하고 가해 행동을 촉발하는 상황 및 환경 변인에 대한 접근도 중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후 연구가 더욱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가해-정신병질 집단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되는 과정이 초기 발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신병질자의 경우 성인기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며, 문제를 조기에 찾아내어 초기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Kwak & Kim, 2008). 이는 가해-정신병질 집단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신병질 아동의 경우 정서적/공감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직접적으로 행동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를 살펴본 경우는 많지 않다(Bayliss, Miller, & Henderson, 2010). 후속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bul 게임과 같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참가자들이 실제 배제상황을 경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사이버bul을 진행한 선행연구에서도 배제경험의 조작은 부적 정서의 증가를 가져왔으며(Nordgren & Banas, 201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모든 집단이 부적 정서는 증가하고, 정적 정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 계

임 중 실험참가자가 상당히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았다(예: 화내기, 상대 욕하기, 채팅가능 여부 질문, 공돌리기 거부, 등). 물론 본 연구 실험참가자 중 상당수가 가해 청소년이었으며, 정신병질 경향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가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간단한 조작만으로 배제경험 조작이 가능했고, 피검자로부터 상당한 격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은 배제상황 경험의 효과를 지지해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감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기존 선행 연구에서 공감을 측정하는 방식은 자기보고 설문지로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측정방식은 기질적 공감능력을 어느 정도 예언해 주는 바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실험 상황에서 나타나는 공감수준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선행 연구(Anastassiou-Hadjicharalambous & Warden, 2008)에서 자기보고식 공감 점수와 실험 지표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인지적 공감능력(자기보고식)과 배제경험 후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 변화수준 간 관련성을 제외하면, 자기보고식 공감 점수(IRI)와 실험 지표인 피해자에 대한 공감 수준 사이에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측정과 실험 지표 사이의 불일치성은 자기보고식 설문은 특질적 공감능력을, 실험 지표는 상태적 공감수준을 반영한다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공감을 상호작용적이며 상태적인 과정으로 바라본 연구자는 주로 실험 패러다임을 통해 공감 수준을 측정하려 한 반면(Ickes, 2001), 공감을 일종의 성격 특성으로 간주하고 접근한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공감능력을 측정할 경우가 일반적이다(Péloquin & Lafontaine, 2010). 다른 한편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이 가해청소년, 특히 가해-비정신병질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Anastassiou-Hadjicharalambous & Warden, 2008). 가해-비정신병질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이 낮고,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내성적(introspective)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보고상으로 자신에 대해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측정과 실험 지표 사이의 불일치성과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가해자 집단 선정 및 정신병질 성향 유무 판단을 자기보고식 측정에 의존하였다. 이는 인지적/언어적 발달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요구특성, 성역할 등이 투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방식뿐만 아니라 전문가 면담, 생리적 지표 등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집단 선정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미리 선정된 시나리오, 즉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 수준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참가자가 제시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에 얼마나 몰두하고 몰입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개인차가 가외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좀 더 실제에 가까운 상황을 조작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셋째, 실험 프로그램 상 오류로 인해 일부 결과를 소실하였다. 그러나 실험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가 의도했던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밝혀내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nastassiou-Hadjicharalambous, X., & Warden, D. (2008). Physiologically-indexed and self-perceived affective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children high and low on callous-unemotional trai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9*, 503-517.
- Andershed, H. A., Kerr, M., Stattin, H., & Levander, S. (2002). Psychopathic traits in non-referred youths: A new assessment tool. In E. Blauuw, & L. Sheridan (Eds.), *Psychopaths: Curr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31-158). Hague: Elsevier.
- Baumeister, R. F., & Tice, D. M. (1990). Point-counterpoints: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165-195.
- Baumeister, R. F., Twenge, J. M., & Nuss, C. K. (2002).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cognitive processes: Anticipated aloneness reduces intelligent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817-827.
- Bayliss, C. M., Miller, A. K., & Henderson, C. E. (2010). Psychopathy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24*, 71-80.
- Blair, R. J. R. (1995). A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morality: Investigating the psychopath. *Cognition, 57*, 1-29.
- Blair, R. J. R. (2003). Neurobiological basis of psychopath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2*, 5-7.
- Blair, R. J. R., Colledge, E., Murray, L., & Mitchell, D. G. V. (2001). A selective impairment in the processing of sad and fearful expression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491-498.
- Blair, R. J. R., Peschardt, K. S., Budhani, S., Mitchell, D. G. V., & Pine, D. S. (2006).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262-276.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 (1986). Perception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 Burke, J. D. (2007).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A. Freeman, & M. A. Reinecke (Eds.), *Personality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429-494). New York: John Wiley & Sons.
- Calkins, S. D., & Dedmon, S. E. (2000).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regulation in two year-old children with aggressive/destructive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03-118.
- Caravita, S. C., Blasio, P. D., & Salmivalli, C. (2008).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empathy and social status on involvement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8*, 141-163.
- Catanese, K. R., & Tice, D. M. (2005). The effect of rejection on antisocial behaviors: Social exclusion produces aggressive behaviors. In K. D. Williams, J. P. Forgas, & W. von Hippel (Eds.), *The social outcast: Ostracism, social exclusion, rejection, and bullying* (pp.297-305). New York: Psychology Press.
- Cho, A. M., & Cho, S. H. (2007). Developmental changes of bullying and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y bullying experience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5*, 37-48.
- Choi, E. S., & Chae, J. H. (2000). A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21*, 109-137.
- Chon, J. Y., Lee, E. K., Yoo, N. H., & Lee, K. H. (2004).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nformity in group bullying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 23-35.
- Cicchetti, D., & Rogosch, F. A. (1996). Equifinality and multifinality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507-600.
- Cohen, D., & Strayer, J. (1996).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2*, 988-998.
- Dautenhahn, K., & Woods, S. (2003). Possible connections between bullying behaviour, empathy and imitation. In K. Dautenhahn, & C. Nehaniv (Eds.), *Models and mechanisms of imitation and social learning in robots, humans and animals: Behavioral social and communicative dimensions* (pp. 323-33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3.
- Dienstbier, R. A. (1984). The role of emotion in moral socialization. In C. E. Izard, J. Kagan & R. B.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 484-5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nti, K. A., Frick, P. J., & Georgiou, S. (2009). Link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to instrumental and non-instrumental forms of aggress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 Assessment, 31*, 285-298.
- Feshbach, N. D., & Fes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the

- regulation of aggression: Potentialities and limitations.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 399-413.
- Frick, P. J. (1998).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Applying the two-factor model of psychopathy to children. In D. J. Cooke, A. E. Forth, & R. D. Hare. (Eds.),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ety* (pp. 161-188).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Frick, P. J., Barry, C. T., & Bodin, S. D. (2000). Applying the concept of psychopathy to children: Implications for the assessment of antisocial youth. In C. B. Gacono (Ed.), *The clinical and forensic assessment of psychopathy* (pp. 3-24). Mahwah, NJ: Erlbaum..
- Frick, P. J., O'Brien, B. S., Wootton, J. M., & McBurnett, K. (1994). Psychopathy and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700-707.
- Gaertner, L., & Iuzzini, J. (2005). Rejection and entitativity: A synergistic model of mass violence. In K. D. Williams, J. P. Forgas, & W. von Hippel (Eds.), *The social outcast: Ostracism, social exclusion, rejection, and bullying* (pp. 307-320). New York: Psychology Press.
- Hicks, C. L., von Baeyer, C. L., Spafford, P. A., van Korlaar, I., & Goodenough, B. (2001). The Faces Pain Scale - Revised: Toward a common metric in pediatric pain measurement. *Pain*, 93, 173-183.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 E.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 103-13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ckes, W. (2001). Measuring empathic accuracy. In J. A. Hall & F. J. Bernieri (Eds.), *Interpersonal sensitivity: Theory and measurement* (pp. 219-241). Mahwah, NJ: Erlbaum.
- Jang, H. S. (1997). The attachment,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4, 88-105.
- Kang, E. K. (2007). *Wangta as a group process: Relation between wangta participant rol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aggressive behavior, social competence and empath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 Kang, T. S., & Lim, Y. S. (2010). The factor of crime revelation according to psychopath tendency of the youth.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7, 115-133
- Kang, U. H., Lee, E. H., & Yim, E. J. (2002). The bullying and psychological trai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 445-460.
- Kim, A. R., Son, Y. G., & Lim, H. B. (2014). The impacts of social exclusion and the need to belong on the affective forecasting of social event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7, 83-94.
- Kim, D. M., Park, H. J., & Kim, J. H. (2005). A validation study of the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 157-176.
- Kim, H. H. (2001). The bullying and school-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8, 119-142.
- Kim, H. W., & Lee, H. G. (2000).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ing the behaviors of bullies and victims at school bullying.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4, 45-64.
- Kim, M. Y. (2013). *The study of factors related to school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Kim, S. E. (1997).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empathy, school records, sociality with in class, and attitude about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hung-Ang, Seoul, Korea.
- Kim, S. J. (2005).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influencing bullying and victim tendenci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 359-371.
- Kochanska, G. (1993). Toward a synthesis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in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4, 325-347.
- Koo, B. Y. (1997). Reason of gipdantadolim in youths and instructions for prevention. *Korean Youth Counselling and Welfare Institute*, 29, 9-35.
- Kosson, D. S., Suchy, Y., Mayer, A. R., & Libby, J. (2002). Facial affect recognition in criminal psychopaths. *Emotion*, 2, 398-411.
- Kwak, K. J. (2008). Korean Wang-ta: Characteristics and preven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 255-272.
- Kwak, K. J., & Kim, Y. S. (2008). A review on the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y: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 71-89.
- Lee, H. H., Kim, E. J., & Lee, M. K. (2003). A validation study of Korea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PANAS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935-946.
- Lee, H. K. (2003). The effects of cultural tendency, empathy and conformity on perception of school bully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 1-25.
- Lee, J. W., Yoon, S. Y., Kim, H. J., & Hur, T. K. (2012). What accounts for school bullying? : The relations among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 factors in school bullying. *A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by Child Fund Korea: Research Papers Support Project*, 98-138.
- Lee, S. J. (2015). *The relationship of youths' psychopathic traits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yonggi, Gyeonggi-do, Korea.
- Lee, S. J., & Huh, J. H. (2004). Psychopathy as a risk factor of crim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39-77.
- Lee, S. J., & Kim, H. J. (2009). Frontal lobe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ability of psychopathic inmat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 107-121.
- Loney, B. R., Frick, P. J., Ellis, M. L., & McCoy, M. G. (1998). Intelli-

- gence,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 Assessment*, 20, 231-247.
- Lovett, B. J., & Sheffield, R. A. (2007). Affective empathy deficits in aggressive children and adolescents: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1-13.
- Lynam, D. R. (1997). Pursuing the psychopath: Capturing the fledgling psychopath in a nomological ne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425-438.
- Masten, C. L., Eisenberger, N. I., Pfeifer, J. H., & Dapretto, M. (2010). Witnessing peer rejec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Neural correlates of empathy for experiences of social exclusion. *Social Neuroscience*, 5, 496-507.
- Merrell, K. W., & Isava, D. M. (2008). How effective are school bullying intervention programs? A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research.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3, 26-42.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 Mineka, S., & Cook, M. (1993). Mechanisms involved in the observational conditioning of fea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22, 23-38.
- Moffitt, T. E. (1993). The neuropsychology of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135-152.
- Muñoz, L. C., Qualter, P., & Padgett, G. (2011). Empathy and bullying: Exploring the influe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2, 183-196.
- Nordgren, L. F., Banas, K., & MacDonald, G. (2011). Empathy gaps for social pain: Why people underestimate the pain of social suffe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120-128.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New York: Wiley.
- Park, J. (2003). The causes and the settlements of teenagers mobbing.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0, 355-369.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arce, J. W. (2007). PsychoPy - Psychophysics software in Python. *Journal of Neuroscience Methods*, 162, 8-13.
- Péloquin, K., & Lafontaine, M. F. (2010). Measuring empathy in couple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2, 146-157.
- Pepler, D. (1997). *Bullying: Research and interventions*. Institute for the Study of Anti-Social Youth. Reported in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re website: www.crime-prevention.org.
- Ragatz, L. L., Anderson, R. J., Fremouw, W., & Schwartz, R. (2011). Criminal thinking patterns, aggression styles, and the psychopathic traits of late high school bullies and bully-victims. *Aggressive Behavior*, 37, 145-160.
- Saltaris, C. (2002). Psychopathy in juvenile offenders: Can temperament and attachment be considered as robust developmental precurso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729-752.
- Sharma, R. M. (1993).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empathy and its foundations in psychoanalysis*. Lewiston: The Edwin Mellon Press.
- Shin, N. M. (2012). Empathy and bullying: How are they related in explaining the types of bullying participation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 25-45.
- Stevens, D., Charman, T., & Blair, R. J. R. (2001). Recognition of emotion in facial expressions and vocal tone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 201-211.
- Sutton, J., & Smith, P. K. (1999). Bullying as a group process: An adaptation of the participant role approach. *Aggressive Behaviour*, 25, 97-111.
- Sutton, J., Smith, P. K., & Swettenham, J. (1999). Bullying and 'theory of mind': A critique of the 'social skills deficit' view of anti-social behaviour. *Social Development*, 8, 117-127.
- Twenge, J. M. (2005). When does social rejection lead to aggression? The influences of situations, narcissism, emotion, and replenishing connections. In K. D. Williams, J. P. Forgas, & W. von Hippel (Eds.), *The social outcast: Ostracism, social exclusion, rejection, and bullying* (pp.201-212). New York: Psychology Press.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058-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606-615.
- Viding, E., Simmonds, E., Petrides, K. V., & Frederickson N. (2009). The contribution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to bullying in early adolesc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 471-481.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illiams, K. D., Cheung, C. K.,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48-762.

국문초록

중·고등학교 또래괴롭힘 가해자의 정신병질 성향이 공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배제경험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어윤정¹ · 이영호²¹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²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가해자 집단이 정신병질 경향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공감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 1,787명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 가해 척도,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실시하여 정신병질 성향, 가해 성향을 측정하였다. 정신병질 경향성이 높은 가해자 집단(이하, 가해-정신병질 집단; $n=34$)과 정신병질 경향성이 낮은 가해자 집단(이하, 가해-비정신병질 집단; $n=39$), 정신병질 경향성과 가해성향 모두 낮은 집단(이하, 정상 집단; $n=40$)을 구분하고 실험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볼 게임을 실시하여 실제로 배제당하는 상황을 조작하였으며, 배제경험 전/후에 또래괴롭힘 피해자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해-정신병질 집단은 배제경험 전후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해-비정신병질 집단과 정상 집단은 공감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일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정신병질 특성에 따라 배제경험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수준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또래괴롭힘, 가해자, 공감, 정신병질